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고광명**
kkm0630@jejunu.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4. 도내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
| 2. 기존연구의 검토 | 5. 맺음말 |
| 3. 국내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 |

主題語: 재일제주인(Jeu people living in Japan),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ic), 감귤산업(Tangerine industry), 제조업(Manufacturing industry), 금융업(Financial business), 관광산업(Tourist industry)

1. 머리말

현재 재일제주인은 2011년 기준으로 재일한인 545,401명 중 86,231명으로 약 1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일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북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¹⁾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징용·징병 등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immigration)되었거나 해방 이후 제주 432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출가해녀(出稼海女)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 등의 대도시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간토(關東)와 간사이(關西) 지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communitiy)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大阪)를 잇는 직행항로(直行航路)가 개설되어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²⁾가

* 본고는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3S1A5A2A01019043).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

1) 入管協會(2012)『在留外國人統計』, pp.10-11

2)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산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향하면서 공업이 발달했던 오사카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주(spontaneous emigration)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재일제주인은 사회·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항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본 사회 속에서 자긍심과 애향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고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일본 이주에서부터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직업을 구하고,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 삶의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국생활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했다. 제주도에 밀려온 애향의 물결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가설, 학교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 까지 마을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65년부터 1984년까지 20년간 고향에 기증한 감귤묘목(묘목 426만7천 그루)은 제주도 감귤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심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문화 사업을 비롯하여 관광산업·금융·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할 뜻을 가지고 자본을 투자하였다. 현재 제주도는 재외(在外)제주인 1세대의 많은 기증과 투자활동으로 눈부신 발전을 달성하였다. 제주도의 지역총생산(GRDP)은 1946년 23억 원에서 2012년(잠정 수치) 119,779억 원(5,208배)으로 급성장하면서 1인당 소득도 8만 8천 원에서 2천 143만 9천 원(2,436배)으로 크게 상승했다.⁴⁾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일제주인의 공헌은 제주지역 사회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제주도 산업발달과 도민소득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사회 속에서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이들이 고향에

3) 이 때는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연락선으로 1922년에 처음으로 취항했다. 이듬해 1923년 2월까지의 부정기 노선으로 취항했으나,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정기항로로 개설되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빈곤에 허덕이던 제주도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란 기대감으로 떼를 지어 연락선에 몸을 실었다.

4) 재외제주인의 공헌 이후 제주도 발전상 비교(1946-2013년)

(단위 : 천명, 억 원, 천원, 천 톤)

구분	1946	1970	1980	1990	2000	2013	신장
인구	266	366	463	515	543	605	2.3배
지역내총생산	23	240	3,492	17,252	52,895	119,779*	5,208
1인당소득	8.8	66	743	3,407	10,091	21,439	2,436
재정규모**	1	29	406	3,177	15,518	38,777	38,777
관광객	-	245	260	2,992	4,110	10,851	44.2
감귤생산	0.01	50	188	493	563	651***	65,100

주: * 2012년 잠정입, ** 최종예산액 기준, *** 2013년 잠정입

애향심을 표현한 기증, 그리고 감귤산업, 제조업, 금융업, 관광산업에 대해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까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와의 관계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제주도 출신들을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재일제주인의 공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재일제주인 1세를 비롯한 2·3·4세에게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2. 기존연구의 검토

2.1 재일제주인의 의미

재일제주인의 의미는 ‘재일동포(在日同胞)’⁵⁾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일시체류, 특별영주권자, 유학, 비즈니스, 1세, 1.5세, 2세, 3·4·5세, 귀화자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 교민 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일(在日)’⁶⁾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⁷⁾

이처럼 재일제주인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본장에서는

- 5) 정호승(2007)에 따르면, 해방이전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교포(僑胞)’가 아니라 동포(同胞)이다.’라고 주장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조국을 떠난 이들을 교포라고 부른다면, 타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조국을 떠난 이들은 동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재일동포를 재일교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가 재미교포를 재미동포라고 부르지 않듯이 재일동포를 재일교포라고 불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조국을 언제 어떻게 왜 어떤 형편에서 떠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생각되기 때문이다. 김남일 외(2007)『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현실문화연구, p.184
- 6) 본고에서 재일(在日)이란 의미는 혈연, 지연, 학연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어 제주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의 출신에 비해 지역정체성이란 맥락에서 재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은 재일제주인 이주의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본래의 한국국적과 조선국적(북한), 그리고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한 거지적 개념의 제주도 출신자를 말한다.
- 7)尹健次(2002)「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서울대학교출판부

재일제주인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일본 사회 속에서 재일한인(在日韓人)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지역 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출신의 재일한인으로부터 ‘섬놈(사람)’이나 ‘유배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일한인 중에서도 결혼을 시키지 않는 등 멸시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 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주도 출신자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해 왔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제주 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면성(裏面性)을 갖고 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 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일본 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70년 세월이 흐르고 재일한인 사회의 세대교체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고, 민족교육을 받는 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가운데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한인 사회의 변화 속에 재일제주인은 국적이나 혈연, 의식 상태,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생활공동체(生活共同體) 성격이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도(道) 단위보다는 마을(里洞) 단위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문중, 학교, 마을 등 여러 형태의 친목단체와 같은 비공식 조직(informal organization)을 잘 형성하면서 혈연(血緣)·학연(學緣)·지연(地緣)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유지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의 기제(機制)로 활용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일본 사회에서 동일한 입장의 재일한인 중에서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 사회에서 생활해 온 타 지역 출신자와 교류가 있고, 일본인보다는 가치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수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주도 출신자 중에서도 2·3세는 소위 재일한인으로서 타 지역 출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본국의 유교적 사고를 흡수하여 살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전달되어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사고가 강하지 않아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⁸⁾

다섯째, 재일제주인은 고향을 떠나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을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해 자신들만의 지역정체성(地域正體性)을 갖고 있다. 즉 이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제주도 출신자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제주도에 대한 애郷심을 갖기 위해 돈을 모아 고헤에 기증하였다. 하지만 일본으로 이주한 세대가 12세에서 34세로 이동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지향성은 본국 중심에서 거주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고헤사람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거주국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헤으로부터 멀어져 지역정체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재일제주인의 의미라는 것은 일본 사회 속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면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2.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출신들이 한국을 비롯한 제주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연구는 대부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고, 재일제주인 사회에 대한 연구가 피상적 접근이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연구 상황 속에서 재일제주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와 관련하여 小川伸彦·寺岡伸悟(오가와·테라오카, 1995)는 재일한인 중에서 재일제주인의 ‘고향 마을’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 사회가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고헤 제주에의 기증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재일제주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뿐만 아니라 고헤 제주에의 기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⁹⁾ 高鮮徽(1998)는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지역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존재가 마을 친목회라고 했다. 이는 해방 전후를 통해 일본에서 출신 지역별로 마을 친목회가 결성되면서 각 친목회가 규약을 정하고 연중행사나 출신지역에 대한 지원, 일본에서의 상호부조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 출신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출신마을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와 상호교류를 충실히 시행해 왔으며 교육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문웅(1998)은 재일제주인 사회의

8) 高鮮徽(1996)『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東地方を中心に』新幹社, p.138

9) 小川伸彦·寺岡伸悟(1995)『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社会学論集』第2号, 奈良女子大学, pp.77-97

10) 高鮮徽(1998)『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明石書店

형성과 특성을 타 지역출신의 재일한인 사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들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작용하고 있는 제주도 특유의 혈연·지연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¹¹⁾ 伊地知紀子(2002)는 타향에서의 생활과 공동성(共同性)을 알아보기 위해 在日本杏源里親睦會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친목회는 재일한인의 다양성을 나타내면서 그 중에서 재일제주인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작은 마을이라는 단위로 모이는 것이야말로 상황규정성(狀況規定性)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¹²⁾ 滝沢健次(2004)는 재일코리안(在日Korean)의 동향 네트워크, 친족 네트워크, 종교 네트워크를 둘러싼 한국 제주도에에서의 공동조사를 중심으로 국내와 일본, 미국 등의 각 지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자와 고향 간에 결합되어 있는 밀접한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제주도 高内里 출신자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¹³⁾ 또 李仁子(2004)는 제주도 고내리(高内里) 출신자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 이주자의 고향에의 기부와 고향 관계의 변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주자 중에는 고향과의 관계를 일절 단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동향출신자 집단이나 조직을 만들어 고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향수를 서로 느끼고자 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주자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의 수주(受注)를 넘어 위신과 존엄의 수주이며, 은의와 감사의 교환이며, 게다가 고향 마을과의 정서적 연대의 갈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¹⁴⁾

다음으로 고광명·진관훈(2006)은 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제주도에의 기증 현상을 고찰했다. 이 연구에서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지역 사회 개발, 교육발전, 마을발전을 비롯한 제주도 전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사적인 영역에서의 생활상태 개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사회와 재일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¹⁵⁾ 이정원·진관훈(2006)은 재일제주인의 투자유치 변천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그들의 투자 애로요인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일제주인의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였다.

11) 이문웅(1998)「재일(在日)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집문당, pp.355-379

12) 伊地知紀子(2002)『生活世界の創造と実践—韓国・濟州島の生活誌から』御茶の水書房

13) 滝沢健次(2004)「在日高内里出身者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そのコミュニティ形成史を中心に」『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學術研究報告書, pp.18-43

14) 李仁子(2004)「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學術研究報告書, pp.7-17

15) 고광명·진관훈(2006)「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社會科學研究』제14(1),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p.148-181

따라서 이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주도와 재일제주인 기업가들 간에 빈번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이 제주도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고광명(2008)은 일본 사회 속에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재일제주인은 한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문중·마을·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친목단체라는 비공식조직을 형성하여 지연·학연·혈연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¹⁷⁾ 고광명(2010)은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일본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활동을 고찰하였다. 재일제주인은 제주사회의 기증과 고향의 애향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재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고 했다.¹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지역출신과 대비되는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 대한 공헌,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3. 국내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재일한인 기업가들은 1965년 한일협정(韓日協定) 이후부터 일본의 앞선 기술을 본국에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선진공업화를 이룩하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64년까지의 공식통계에 따른 재산반입 명목의 재일한인 자금만 해도 2,569만 달러(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2,000달러)였다. 특히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재일한인이 본국에 투자한 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액 9억 달러를 상회했다.¹⁹⁾ 이처럼 재일한인 기업가들의 국내진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의 선진기술 도입, 공장설비 구축 등으로 인해 산업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16) 이경원·진관훈(2006)「제주도 지방정부의 재일제주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韓國比較政府學報』第9卷 第3號, 韓國比較政府學會, pp.171-188

17) 고광명(2008)「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日本近代學研究』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187-210

18) 고광명(2010)「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日本近代學研究』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217-242

19) 재일한인의 전체 투자 액수는 정확한 수치로 산출하기 어렵다. 다만 在日本大韓民國民團(이하 민단)을 통한 투자 액수만 해도 대략 3조 2,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1965년부터 시작된 40년 동안의 재일한인의 본국 투자 형태는 친척방문 투자(1965-80년), 제조업 투자(1965-88년), 서비스업 투자(1988~88년), 첨단 산업 투자(2000년 이후)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일한인 1세들의 애국심에서 발로한 투자란 측면도 있었지만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 한국 시장의 매력도 컸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본국에 진출한 재일한인 기업가들은 섬유, 기계, 전기전자, 금속 등의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금융, 관광·레저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부문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수출 촉진 등 모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본국의 전기·전자산업에 건인차 역할을 해온 한국마벨(金容太), 싸니전기(郭泰石), YC안테나(許弼奭) 등을 비롯해 롯데제과(辛格浩), 방림방직(徐甲虎)²⁰⁾, 삼화제관(姜炳浚), 대한합성화학공업(安在祐), 신한은행(李熙健)²¹⁾ 등과 같은 많은 기업가들의 본국 투자활동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

제주도 출신으로 제조업에 공헌한 대표적인 기업가로 안재호(安在祐)²²⁾는 일본에서 유기화학공업(주) 등 5개 기업을 운영하면서 1967년에 대한합성화학공업(주)을 설립하여 한국 화학공업의 기초를 다진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화학회사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마케팅, 기술, 일본인 직원을 데리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종업원들을 일본에 파견해 기술 연수를 받도록 했다.

<표 1> 재일한인의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사)

연도 업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기전자	30	30	28	28	28	30	28	22	22	22
금속	12	13	13	13	13	13	13	4	4	4
화공	16	20	20	20	20	20	20	10	10	10
기계	10	12	10	10	10	10	10	11	11	7
식품	13	13	13	14	14	14	14	4	4	4
섬유의복	4	5	4	4	4	4	4	2	2	2

20) 서갑호(徐甲虎)는 일본에서 사카모토방직(坂本紡績)을 운영하면서 1963년 100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방림방직(邦林紡績)을 창립하고 구미공업 단지에 대규모 방직공장을 세웠다.

21) 이희건(李熙健)은 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1977년 납입자본금 30억 원(설립 등기 납입자본금 5억 원)으로 第一綜合金融을 설립하였다. 이어 1982년에 설립된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재일한인들의 순수한 민간자본(납입자본금 25억 원)으로 탄생되어 일본에서 축적한 경영노하우를 도입하여 한국의 금융계에 신바람을 불게 하였다.

22) 재일기업가 안재호(安在祐)는 日本有機化學工業(주)을 경영하면서 자본을 형성하여 1990년 142백만 엔, 1991년 148백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33,461 순위를 차지하였다.

기타 제조	12	6	5	5	5	5	5			
무역	6	12	13	13	13	13	13	10	10	10
숙박	25	27	28	28	28	28	28	15	13	13
금융	10	12	9	9	9	9	9	11	11	12
건설	7	7	7	8	8	8	8	4	4	3
골프	14	13	13	13	13	13	13	11	11	10
운수	4	4	4	4	4	4	4	2	2	2
건물임대관리	9	13	13	13	13	13	13	9	9	9
기타 서비스	29	21	21	21	55	22	22	16	15	13
합계	201	208	201	203	204	204	204	131	128	120

자료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30年史』.

<표 2>에서 보면 1967년 9월 대한합성화학공업(大韓合成化學工業)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요소 수지 및 멜라민 수지를 생산하였고, 이와 동시에 칠기 및 멜라민 식기류를 생산했다. 특히 동사에서 생산된 멜라민 식기 및 유리 식기는 서울의 일류 백화점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백화점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이었다.

<표 2> 대한합성화학공업(주) 현황

기업명	大韓合成化學工業(주)	기업공개 분류	외감
대표자명	安光伸	기업규모	소기업
사업자 번호	109-81-00000	법인/주민번호	110111-0000000
주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업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설립일자	1967년 9월 8일

자료 : <http://www.dnbreport.co.kr>

이 회사는 1967년 창업하여 1973년 일본유기화학공업(주)과 51% 대 49% 비율로 외자 도입법에 의해 세워진 합작투자 회사로서 1975년부터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수출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1994년 안재호가 타계한 이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4남 에츠지(悅司)가 대표이사를 계승하였으며, 2010년부터 5남 미츠노부(光伸)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동사는 1967년 설립한 이후 3백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가운데 연간 2만 4천 톤의 생산설비를 가져 공업용 호루마린을 생산한 바 있다.²³⁾ 현재 동사는 1967년 회사를 창립한 이래 한국 합성수지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²⁴⁾

또한 고운중(高雲鍾)은 (주)아사히(旭)비닐(電線製造業)을 경영하면서 1979년에 본국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기도에 한일합작으로 중장비용 유압 컨트롤 밸브전문 업체 (주)한일유압을 설립하기도 했다. (주)한일유압이 생산한 건설 중장비 및 산업용 기계의 모든 제어의 중심에서 이를 컨트롤하는 핵심기기 메인 컨트롤 밸브는 2004년에 옛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면서도 ‘ISO9001’과 R마크를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공격적 경영을 통해 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인건비가 급등하고 기술발전이 진척되면서 재일한인들의 본국 투자도 제조업에서 탈피해 호텔, 골프장, 빌딩 임대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에서 IT²⁵⁾업종의 한국진출이 시작되며, 전기에서 전자로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제주도 출신 가네다 세이형(金田 聖彬, 아인소프트)은 2009년 광주지역 온라인게임 개발과 유통사업 전문회사에 향후 7년간에 걸쳐 총 1억 달러(1,200억 원 상당)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표 3>에서 보면 재일한인의 모국투자는 1977년 74사가 본국에 진출하여 그 동안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1995년 201사까지 늘어났으며 투자액이 약 3,260억 엔에 달했다. 1997년 본국의 IMF 구제금융(救濟金融)을 계기로 2004년 120사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현재 90사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 투자에 대한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와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또한 재일민단도 규약에서 일본 ‘거류(居留)’를 삭제하고 ‘정주(定住)’를 지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3) 姜龍三·李京洙編(1984)『大河實錄 濟州百年』泰光文化社, p.1342

24)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말·글·빛남, pp.75-76

25) 손정의(孫正義, 소프트뱅크) 회장은 소프트뱅크 코리아를 설립하여 IT 관련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표 3> 재일한인의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사)

연도 지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	119	121	124	120	121	122	122	73	63	56
부산	12	12	14	14	14	14	14	8	8	8
대구	5	4	5	5	5	5	5	1	1	1
인천	6	6						2	2	2
경기	26	16	19	19	20	20	20	20	20	20
경남	16	16	17	16	16	16	16	15	15	14
경북	12	12	12	10	10	10	10	11	11	11
충남	3	3	4	4	4	4	4	3	3	3
충북		3	4	4	4	4	4	2	2	2
전남	1	1								
광주	1	1								
제주	8	8	6	6	6	6	6	1	1	1
기타			3	3	3	3	3	2	2	2
합계	201	203	208	201	203	204	204	138	128	120

자료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30年史』.

결국 이들은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로 출발한 1960년대 초반 힘이 없는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재일한인 사회에서는 취직차별 철폐가 진행되면서 재일한인 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일본 기업으로 흡수되면서 재일한인 기업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애향심이 아닌 재산성을 중시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도내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4.1 감귤산업에 대한 공헌

제주지역의 감귤은 1950년대까지 서귀포지역의 일부 농가에서만 재배되었기 때문에 그 재배 면적(생산량)이 1953년 17ha(6톤), 1960년대 64ha(190톤)에 불과하여 농가소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에서 고향 땅으로 감귤묘목을 조금씩 기증하면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게다가 1960년 말에 정부가 감귤생산 발전을 위한 시책을 내놓은 이후 온주감귤 재배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확장됐고,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1965년부터 감귤재식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재일제주인 사회에서는 재일제주인 관련 단체와 마을 단위 친목회를 통해 고향에 감귤묘목을 기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개발협회는 양질의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1967년도에 2만 9,000본의 묘목을 기증 알선했다.

<표 4>에서 보면 1965년부터 1969년까지 기증묘목 및 수입묘목 또는 재산반입으로 들어온 총 본수는 1,733,711본으로 나타났는데 이때부터 재일친목단체 등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기증하는 묘목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수입묘목은 1970년도에 1,519,300본이 들어와 식재되면서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1년에 1백만 본 이상의 묘목이 기증, 수입, 재산반입 등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증묘목에 대한 수입지침을 강화하고 수입을 제한하게 되었다. 당시 감귤묘목의 기증은 단순히 묘목의 수요와 공급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제주도의 경제발전 방향과 재일제주인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0년 봄에 기증 및 수입묘목으로 제주도에 공급할 묘목 본수를 60만 본으로 정했으나 실재는 1,604,300본이 들어와 1백만 본 이상 초과되는 묘목이 공급되기도 했다. 이후 감귤묘목은 일본에서 기증하여 수입되는 양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9년도를 끝으로 매듭을 짓게 되었다.

<표 4> 제주도 감귤묘목 수입 현황(1965~1985년)

(단위 : 본수)

연도	감귤묘목	기증묘목	수입묘목	재산반입	합계
1965		1,000	25,349		26,349
1966		54,700	61,052		115,752
1967		52,100	250,205	1,675	303,980
1968		161,500	114,545	13,215	289,260
1969		998,370			998,370
1970		1,519,300	77,000	8,000	1,604,300
1971		1,000		1,000	2,000
1972					
1973		30,270			30,270

1974	215,450	33,283		248,733
1975	270,384			270,384
1976	66,402			66,402
1977	2,684			2,684
1978	4,630			4,630
1979	85,934	200,000		285,934
1980				
1981		600		600
1982		4,866		4,866
1983		5,712		5,712
1984		1,500		1,500
1985		1,500		1,500
합계	3,470,254	774,112	23,890	4,268,256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이 같은 감귤묘목 기증 외에도 이들은 기술 연수생을 선발해 일본에서 감귤재배 기술을 보급하는가 하면, 일본의 감귤재배 전문가를 제주도에 파견해 현지 지도에 나서는 등 감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현재 제주도 감귤은 1946년 10톤에서 2011년 64만 8천 톤(64,800배), 2013년 12월말 65만 1천 톤(65,100배)을 생산하고 있다. 조수입은 2005년 600,639백만 원, 2010년 650,000백만 원, 2012년 801,175백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제주도민의 농가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4.2 제조업에 대한 공헌

4.2.1 선일홍업(주) 제주공장

제주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유창산업, 선일(鮮一)홍업, 해태농수산, 한국해조분 등 비교적 큰 공장들이 세워졌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1964년 재일제주도민단체(재일본제주도민회, 제주개발협회)의 초청으로 감귤묘목 재배장, 햄 공장 겸 양돈장, 포도당 제조공장 등을 답사하게 되었다. 그 중 포도당 공장을 고른 것은 쌀 대신 먹는 대체식량으로 취급받는 고구마도 포도당으로 가공하면 원재료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되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답사단은 고구마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현장을 목격하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4년 후 1968년 11월 제주도에는 고구마를 주원료로 한 포도당 생산 공장이 들어섰다.²⁶⁾

선일홍업(주)²⁷⁾ 제주공장(대표자 박상만)은 1968년 제주도 서귀포에 8억 6천만 원을 들여 설립된 공장이다. 생고구마 102천 톤을 처리하고, 포도당 115백 톤을 생산함으로써 외화 110만 달러를 절약하여 연간 52,8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와 농가소득 5억 4천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1972년에는 고구마 전문업으로 종업원 13명이 종사하였다. 당시 이 공장은 지역사회 개발이란 관점에 역점을 두어 제주도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제주도산 고구마 처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가동된 지 얼마 안 되어 운영자금에 고갈되고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 이 공장은 주원료를 고구마가 아니라 옥수수나 밀가루를 사용하게 되고 더욱이 제주도에 제분공장이 없는 관계로 부산으로부터 밀가루를 조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동률과 수익성이 크게 부진하여 1974년에 휴업하게 되면서 1975년에 선일포도당공장을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옛 선일 포도당 공장 및 천지연 인근지역을 친환경적 생태공원(걸매 생태공원)으로 서귀포시가 조성하였다.

4.2.2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酒精)공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지사는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 생산을 목적으로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는 제주도에 주정공장을 설립하기로 확정하여, 1940년부터 시설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제주주정공장(Jeju Plant of Absolute Alcohol)²⁸⁾은 1940년 제주지사가 제주항 근처의 약 4만 3,685㎡ 부지에 약 7,580㎡ 규모로 착공하여, 1943년 완공한 주정 제조공장이다. 이 공장은 1943년 말부터 항공기 연료인 아세톤·부탄올 발효(acetone-butanol fermentation) 등 화학 원료를 생산하여 일본군 병참 본부에 항공원료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1944년 말에는 주정(94%)을 생산하여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 자동차 연료로도 공급하였다. 결국, 제주지사에서는 일본 전역에 주정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동양 제일의 시설 규모를 갖춘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26) 부만근(2012)『제주지역개발사』제주발전연구원, pp.171-172

27) 이 공장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4년 4월 대한합성당공업(주) 설립, 1964년 11월 대한당업(주) 상호변경, 1965년 3월 선일홍업(주) 상호변경, 1968년 11월 제주공장 준공, 1969년 8월 선일포도당공업(주) 상호변경, 1969년 10월 선일포도당(주) 상호변경, 1976년 1월 인천공장 준공, 1985년 1월 삼양사 인수, 1995년 8월 삼양제맥스로 상호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8) 고봉만은 이 공장이 남한에서 제일가는 주정공장이며 굴뚝이 50m나 되어 한라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주정공장 굴뚝이었다고 한다. 건입동 작은 마을 속 여기저기 공장들이 많아 그런대로 밥 벌어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일손이 모자라서 거기에 가서 일하면 일당을 주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고구마, 감자 심으라고 한 걸 수확하면 주정공장의 주원료인 고구마를 공출 바치고 자기 먹을 것 별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 blog.daum.net(2009.1.19).

동 공장은 공장부지 14,000여 평, 주정 생산능력 14,940,000L, 고구마 5,000만관(절간 환산 1,500만관), 보일러 3대, 무연탄 연간 42,000톤, 그리고 매일 1,400kw 전력을 생산하여 제주시내에 공급하였다.²⁹⁾ 또한 이 공장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제주도민에게 고구마 절간을 강요하여 농민을 힘들게 했다. 동 공장은 종업원 600여 명을 고용하였고, 제주시 산지 항구를 통하여 화물의 약 80%(70,000여 톤)을 입·출하했으며, 하역비, 선박운임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제주주정공장은 군정청(軍政廳)에서 신한공사(新韓公社)를 발족하여 관리하다가 1946년 3월 신한공사가 해체된 이후 미군정 상공부로 이관되었다. 1951년 1월 동 공장은 이종열(李鍾烈)에게 불하된 이후 동년 제주주정공업회사로 창립하여 가동되었으나 운영 부실로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다. 전 경영자는 1970년 은행 부채와 사채로 인해 주정공장을 재일제주인 기업가(白昌鎬)에게 4억 3천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는 절간고구마와 당밀(糖蜜)로 주정을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원료 구입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72년 자금난에 봉착하여 은행 부채(2억 2천만 원)와 사채(2억 1천만 원)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당시 자본금은 주당 500원(123,400주)으로 6천 1백 70만원이었고, 부동산은 5억 5천 4백만 원에 달했다. 1973년 제주주정공장은 경매 끝에 2억 5천 1백 50만원에 천마물산(天馬物産) 김봉근(金鳳根)³⁰⁾에게로 넘어 갔다. 천마물산은 1973년 10월 주정공장을 서울에 있는 진로주조에 3년간 임대하였지만 오폐수 처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 및 원료 구입 문제로 인해 조업이 자주 중단되었다. 결국, 1983년 조업이 완전 중단됨에 따라 1989년 공장의 상징인 굴뚝이 해체되어 천마물산은 1993년 공장 대지에 3,293㎡ 규모의 창고를 건립했으며, 고구마 저장 창고가 있던 부지에는 아파트를 건립하였다.³¹⁾

4.2.3 금융업에 대한 공헌

제주도는 196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지역자본의 동원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은행이 1969년에 설립되었다.

김봉학(金鳳鶴, 天馬合成樹脂)은 1969년 자본금 2억 원 규모로 (주)제주은행을 창립하고, 이후 1974년 제주상호신용 금고³²⁾를 설립하는 등 재일제주인 자본에 의한 제주지역 서민금융

29) 건입동마을회(2008)『健入洞誌』, pp.150-152

30) 재일기업가 김봉학(金鳳鶴)은 도쿄에서 天馬合成樹脂(주)를 경영하면서 자본을 형성하여 1990년 4,228백만 엔, 1991년 4,462백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1,121 순위를 차지하였다.

31) <http://news.jeju.go.kr>

32) (주)제주상호신용 금고는 1968년 3도2동에 설립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제2금융기관이다. 1972년

기관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1972년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으며, 1973년에는 제일은행 서귀포지점을 인수했고, 1983년에는 일본 천마합성수지(주)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1997년 말 46개 지점을 두었다. 같은 해 총 자본금은 5백억 원, 총 예금액은 1조 2천 641억 원, 총 대출액은 1조 21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따른 IMF체제 이후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여신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구조조정 노력이 가속화되어 1997년 말 기준으로 정규직 인원을 감원했으며, 영업점 축소(46개에서 34개로), 임직원의 임금동결 및 삭감조치도 뒤따랐다.

또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에 힘입어 도민주(420억 원)를 포함하여 1·2차 유상증자를 통해 950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1,200억 원을 확보하고 경영정상화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도민주 공모의 경우 재외도민 50명을 포함하여 9,220명으로부터 420억 원(주당 5,000원)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천마물산(金鳳根)³³⁾, 천마목장, 천마학원, 퍼시픽랜드 등 제주경제와 교육 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결국 제주도내의 금융업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도내 토착자본으로 제주은행이 설립되어 지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제주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고 있다.

4.2.4 관광산업에 대한 공헌

우선, 김평진(金坪珍, 金海商社)³⁴⁾은 1963년 외국인이 투숙할 만한 호텔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약 3천만 원으로 제주도에 현대식 시설(건평 2,890m²)을 갖춘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관광호텔)을 지었다. 이후 1964년 서귀포에 허니문하우스(현 파라다이스호텔)와 서귀포관광호텔을 연이어 건립해 제주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투자는 제일교포 재산반입의 동기가 되고 제주출신 한인들에게 애향심 발로의 가교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이왈옥(李曰玉, 東京協和高木工場東京山新興業)은 1979년 10월에 고향으로 돌아

8·3 사태동결 조치 후 사설금융기관의 정비로 도내 인가업체는 한때 14개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6개의 상호신용금고만 존속하고 있다.

33) 천마물산(주)은 1996년 설립된 제주도의 토착기업으로서 LPG, 유류 판매업을 하며, 연간 4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도내 최고의 에너지 기업이다. 제주도내 LPG 시장 점유율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최근 LPG 물류센터 및 충전소를 추가로 개점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34) 제일기업가 김평진(金坪珍)은 도쿄에서 金海商社(주)를 경영하여 자본을 형성하여, 1990년 171백만 엔, 1991년 361백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13,842 순위를 차지하였다.

와 제주팔레스개발(주)을 설립해, 1988년 관광1급 호텔인 제주팔레스관광호텔을 건립했고 이어 1999년에 제주하와이관광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창호(白昌鎬, 愛三産業白河産業)³⁵⁾는 1986년 제주컨트리클럽을 설립하여 고향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김홍주(金弘周, 本家かまどや)는 1999년 고향 제주에 자본을 투입해 안덕면 상천리에 29홀 규모의 핀크스 CC(골프클럽)을 개장하여 세계 100대 골프코스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러한 투자의 성공은 지금까지 고향 제주에 투자한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상당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재일한인 사회가 고향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개발의 자본조성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제주인의 자본유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주도는 1997년 8월 1,60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컨벤션센터(ICC Jeju)를 건립하였다. 총 출자액(1,600억 원)에 주주가 4,129명인 ICC 주식분포는 제주특별자치도 57.02%, 한국관광공사 17.42%, 그리고 도민과 기업체 등 민간주주가 25.56%를 갖고 있다. 이 중 재일제주인의 자본은 주주 55명이 77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컨벤션센터 설립에 기여하는 등 제주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제주컨벤션센터는 2004년 결산 결과에서 71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매출액도 당초 목표액의 54% 수준인 9억 7,300여만 원에 머물면서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는 재일제주인들이 보유한 ICC제주의 주식 가운데 2012년 9월말 현재 36억 7,700만 원(58명)이 발행 당시 액면가(주당 5,000원)에 반환된다고 했다. ICC제주 출범 때 재일제주인 197명이 매입한 주식은 57억 3,100만원으로 나머지 주식도 반환 신청을 받고 있다. ICC제주 주식을 보유한 재일제주인 중에는 계속 갖고 있길 원하거나 증권을 분실한 경우, 상속 등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진척이 없던 ICC제주 주식 반환요구가 드디어 실현되어 고향을 사랑한 나머지 ICC제주 주식 공모 요청에 응한 재일제주인들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렸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현상은 제주컨벤션센터 건립 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혼선 등으로 제주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주도가 재일제주인의 동정심과 애향심으로 투자나 기증에만 의존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에 연평균 9.8%, 1980년대에 연평균 16.5%가 성장함

35) 재일기업가 백창호(白昌鎬)는 도쿄에서 愛三産業(주)을 경영하면서 자본을 형성하여 1990년 94백만 엔, 1991년 64백만 엔의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74,089 순위를 차지하였다.

36) 《제주의 소리》 2012년 10월 15일

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관광수입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4,319억 원, 2000년대에 14,97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65,463억 원에 이르렀다.

5. 맺음말

본고는 재일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을 고찰해 봄으로써, 최근 재일제주인의 삶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재일한인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귤묘목 기증은 제주도의 경제발전 방향과 재일제주인과의 관계정립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루어졌다. 둘째, 호텔업 건설은 제주도 관광산업의 인프라 정비에 막대한 공헌을 했으며 관광사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여 관광개발(숙박시설, 골프장, 회의시설 등) 붐의 기폭제가 되었다. 셋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은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제조업(포도당, 주정공장)이나 금융업(제주은행, 제주상호신용금고)에 진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넷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은 1960년대 초 힘이 없는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재일제주인의 본국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재화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다섯째, 지역사회 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면 제주지역의 개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자리 메김을 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의 공헌은 재일제주인 1세들의 많은 기증과 투자로 눈부실만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과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일제주인의 투자는 기증과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제주도예의 자산을 위탁하는 형태가 많았다. 이는 친인척들과의 사적거래에서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으며 대규모 공식적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1965년에는 제주도 개발을 위한 해외동포 재산반입 허가에 관한 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일제주인의 향토개발을 위한 투자의 길이 열렸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은 감귤산업, 제조업, 금융업, 관광산업 등에 소규모이거나 가족단위 혹은 지역에 대한 기증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주도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향후 제주도는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이 고향에 투자할 때마다 좋은 성과가 없어서 23세들이 새로운 투자에 난색을 표현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參考文獻】

- 姜龍三·李京洙編(1984)『大河實錄 濟州百年』泰光文化社
- 건입동마을회(2008)『健入洞誌』
- 고광명(2008)「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日本近代學研究』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 _____(2010a)「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日本近代學研究』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 _____(2010b)「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日本近代學研究』第30輯, 韓國日本近代學會
- _____(2011)「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古堂 安在祐 연구」『日本近代學研究』第34輯, 韓國日本近代學會
- _____(2013)『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고광명·진관훈(2006)「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社會科學研究』제14(1),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 김남일·서경석·양영화·정호승·최인석(2007)『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현실문화연구
- 김봉옥(2000)『증보 제주통사』世林
-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말글빛냄
- 부만근(2012)『제주지역개발사』제주발전연구원
- 尹健次(2002)「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경원·진관훈(2006)「제주도 지방정부의 재일제주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韓國比較政府學報』第9卷 第3號, 韓國比較政府學會
- 이문웅(1998)「재일(在日)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집문당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재외동포재단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 제주발전연구원(2007)『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 제주상공회의소(2010)『제주경제백서』
- 제주상공회의소(2013)『2013 제주경제지표』
-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鄉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 高鮮徽(1996)『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東地方を中心に』新幹社
- 高鮮徽(1998)『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明石書店
- 李仁子(2004)「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文部省科学研究費 國際學術研究報告書
- 小川伸彦·寺岡伸悟(1995)「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社会学論集』第2号, 奈良女子大学
- 伊地知紀子(2002)『生活世界の創造と実践-韓國濟州島の生活誌から』御茶の水書房
- 入管協會(2012)『在留外國人統計』

滝沢健次(2004)「在日高内里出身者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ーそのコミュニティー形成史を中心に」『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http://www.dnbreport.co.kr>

blog.daum.net(2009.1.19)

<http://news.jeju.go.kr>

《제주의 소리》 2012년 10월 15일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K C I

〈要旨〉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본고는 재일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을 고찰해 봄으로써, 최근 재일제주인의 삶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재일한인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의 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조업(포도당, 주정공장), 금융업(제주은행, 제주상호신용금고), 관광산업(숙박시설, 골프장, 회의시설) 등 산업경제의 공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셋째, 재일제주인의 공헌은 산업경제, 지역사회 개발 등 제주도 전반의 발전에 기여를 했음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의 생활개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고는 제주지역의 산업경제(감귤산업, 제조업, 금융업, 관광산업)에 대한 공헌을 통해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의 애향심과 제주사회의 공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제주도 사회와 재일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The Study on the Industrial Economic Contribution of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This is to study the donation for and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Jeju industrial economic by the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As the lives of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is regarded as important as ever in the study of contemporary Jeju society, this study will indicate some implication to the scholars who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in and out of Korea. My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tribution of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brought economical benefits and improvement of their lives to the beneficiaries. Second,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supported Jeju society with wide range of industrial economic and tangerine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glucose, drunkenness), financial business(banks, mutual credit deposit box), tourist industry(accommodation facilities, golf course, conference facilities). Third, contribution of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had influence on community and industrial economic of Jeju and enhancement of livelihood in private section.

From the study of these factors, it was revealed that their contribution, support did help Jeju industrial economic and develop its Jeju society. Also, this study will help Jeju societ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contribution and support by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help finding the ways of interchange between Jeju community and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stably in the human resources and the material resources perspective.